

'5월 눈물의 현장'이 문화공간으로... 다시 주목받는 상무대 영창

5·18 38주년

보이라 오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

5·18민주화운동 당시 수많은 시민이 온갖 고초를 겪었던 상무대 영창이 5월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살아있는 문화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그동안 상무대 영창은 5·18 당시 법정, 영창 등을 재현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만 진행해 왔으며, 대규모 예술 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 기념문화센터는 오는 10월부터 29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서구 5·18 자유공원(옛 상무대 영창)에서 '5·18 영창 특별전 스톨세 개의 방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5·18 영창 특별전 스톨세 개의 방 이야기'는 시민의 진실을 중심으로 5월 당시 아픔과 진실을 보여주며, 헌병대 사무실과 내무반, 영창, 법정 등 7곳의 장소를 23공간으로 구성해 주제별로 전시한다.

'학살의 방'과 '공포의 방'에서는 공수대원의 잔혹한 진압과 학살만행, 시민의 결사항쟁 과정과 병원 응급실 상황과 흑독한 고문수사도 육성증언을 통해 보여준다. 북한군 개입설 등의 왜곡된 사실과 헬기 사격의 실체를 입증하는 자료와 증언을 통해 5·18의 진실을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어린이와 노약자의 관람이 제한된 '통곡의 방'에서는 신군부에 의해 잔인하게 학살된 시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최초로

10~29일 '5·18 영창 특별전... 스톨세 개의 방 이야기' '5·18 미투' 김선옥씨 '진실의 방' 등 주제별 전시 '택시운전사' 김사복씨 미공개 사진전 등 예술행사도

공개해 이들의 만행을 고발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개봉한 택시운전사 등 5·18을 소재로 한 영화, 연극, 도서 등 문화를 소개하고 1980년 5월18일 흥경기를 치를 수 없었던 '해대 타이거즈'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소개한다.

'진실의 방'에는 38년 동안 홀로 간직해 온 김선옥(60)씨의 이야기가 '무너진 스톨 세 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다. 80년 5월 전남대 음악교과과 4학년이었던 그는 5월 22일 책을 사라 금남로에 나갔다가 전남도청에 합류했다는 이유로 상무대 영창에 끌려갔고, 여관에서 성폭행까지 당했다. 이후 김씨와 가족의 삶은 처참할 정도로 망가졌다.

김씨의 사연이 담긴 진실의 방에 들어서면 한쪽 벽면 꽃 그림 위로 피해 여성이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세상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노란 나비들이 날아오른다.

5·18 기념문화센터는 또 이번 특별전 전시회를 통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인 고 김사복씨의 자료와 사진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내놓는다. 10일 개막 행사장에는 김사복씨의 아들 김승필(59)씨가 직접 찾아와 자신의 아버지 사진과 자료가 전시된 추모의 방에서 1시간 동안 직접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추모의 방은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서울에서 광주까지 목숨을 걸고 내려온 헌즈페터와 김사복씨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사진 등을 통해 공개한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김사복씨의 사진도 전시된다.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에 반대하고 이듬해 12월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으로 인해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고(故) 장준하 선생과 고(故) 함석헌 선생이 재판정에 들어간던 중 이들을 모시던 김사복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은 지난날 캐나다에 살던 함석헌 선생의 외손자인 정현필씨가 이메일을 통해 김승필씨에게 전달했다.

김승필씨는 "5·18이 일어나기 전부터 아버지는 외신기자들과 일하면서 알게 된 민주화 인사들과 친분을 쌓은 뒤 실제로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전시회는 5·18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졌다.

임종수 5·18 기념문화센터 소장은 "지난 3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5·18 당시 시민들이 고통받은 상무대 영창에서 개최된 전시회를 통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앞으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김현영기자 young@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고초를 겪었던 옛 상무대 영창에서 오는 10월~29일 '5·18영창 특별전'이 열린다. /김진수기자 jeans@



홍성담 작가 작 '운동화 비행기'(왼쪽).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 운동' 선언문을 발표 후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장준하(오른쪽) 선생과 함석헌(왼쪽) 선생이 1974년 1월 재판정에 들어가는 것을 함께한 김사복(원 안씨). <5·18기념문화센터 제공>



靑, 북미 정상회담 시기·장소 발표 지연에 '촉각'

북·중 회동설 예의주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발표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이번 주 초에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등 발표 시점이 사실상 임박하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미 정상회담 시기나 장소와 관련해 한미 간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외청 청와대 안보실장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비핵화 외에도 생화학무기까지 포괄하는 대량과 괴무기 폐기를 거론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등 '힘 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결정적 국면을 앞두고 여러 다른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하이라인 통화' 시기와 관

련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켜보자"고 밝혔다.

북한의 고위급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를 전격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북중 최고 위층 회동설'을 두고서는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상당히 무게를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북 접경지에 평화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런저런 구상들이 나오고 있으나 현실화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고 아직 많은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한중

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중국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중일 간의 이전 조율에 스가 관방장관이 말한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경수사권 조정 완료 시점이 6·13 지방선거 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20일자로 검경에 공식적인 입장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입장을 받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광범히 복잡해 이를 조율하고 하나로 만들어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3605-5000

'택시운전사'·'화려한 휴가' 명장면 뮤지컬로 5·18 기념식 무대 오른다

영화 '택시운전사'(사진)와 '화려한 휴가'의 명장면들을 모아 뮤지컬로 각색한 작품이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에 오른다.

8일 국가보훈처,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올해 기념식에 새로운 구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5·18을 소재로 만든 영화 속 장면을 재구성한 뮤지컬이 기념사 낭독에 이은 기념식 후반부 현장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뮤지컬은 15분 분량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 장면과 실제 역사 상황을 결합해, 항쟁 전개 과정과 오월 정신을 표현할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당시 양동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5월



19일 이후 행방불명된 이창현 군의 아버지가 뮤지컬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장 뮤지컬에 출연하는 배우는 식전 공연에도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념식 전체가 뮤지컬을 중심으로 큰 이야기식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6·15 남북공동행사 23~26일 평양 개최 논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오는 23~26일 평양에서 6·15 남북공동행사와 각계 교류 등에 대한 민간 차원의 논의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남측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남측위)는 6·15 남·북·해외위원장 회의의 5월 개최를 북측, 해외 측에 제안했다"며 "최근 6·15북측위원회로부터 5월 23~26일 평양에서 개최됐으면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남측위는 "판문점선언 이행의 추세 속에서 민간교류 역시 다방면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가운데 6·15남북 해외 위원장 회의가 잘 성사되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협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심약번호 : 21719239
010-3598-7080

"공장부지 매매" (급 매)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대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매매가 30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급 식당 임대
● 서구 쌍촌동 965-12번지 1층
● 약20평 보증금 1천만 월 90만
● 시설 : 에어컨, TV, 주방시설 완비
냉장고 기타비품 풀 완비 (약 4천만원 상당)
● 급 : 1천2백만에 양도
● 부동산 환영
감정가 40%이하 급 모텔
● 전남지방 방 15개
● 감정 5억6천 급 매매가
● 3억5천 담보제공가능
감정가 30%이하 급 모텔
● 광주 북구 방 30개
● 감정 11억 급 매매가 7억8천
● 현 법인소유 이전비 없음
문의 010-7527-7400